

# “전체 예산 67% 투입... 복지 1번지 만들것”

# “한국, 쌀개방 미루려면 보상해야”

## WTO 사무총장 “타 수입품목 관세 인하 등 포함”

###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송 광 운 광주 북구청장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송광운 광주시 북구청장은 10일 민선 6기 동안 경제와 복지 중심의 구정을 펼쳐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4·5기 북구청장을 지낸 그는 그동안 중소기업 살리기와 농가소득 증대, 건강복지타운 건설 등 경제 살리기와 주민 복지정책 위주의 시정을 펼쳐 상당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경제 살리기와 복지 1번지로서의 기반을 다졌다면 6기 때 이를 바탕으로 한 명품 북구 건설에 올인하겠다는 게 그의 야심찬 계획이다.

다음은 그의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지난 8년간 잘 사는 북구, 지역민이 행복한 북구 조성을 위해 힘 없이 달려왔다. 30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열악한 북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점을 구민들이 높이 산 것 같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중단 없는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

-3선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 수요도 많고 살펴야 할 곳도 많다. 우선 북구의 비전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비전팀을 만들어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을 증원할 것이다.

특히 민선 5기 공약이행평가 4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수상할 정도로 북구는 구민과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기초자치단체다. 앞으로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복지 1번지를 만들기 위한 계획 및 북안은.

▲북구는 전체 예산의 67%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다. 북구는 대규모 복지인프라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복지 1번지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신안·중흥지역 노인복지관과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5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또 국토해양부 주관 행복주택건립 사업에 북구가 선정됐는데, 2016년까지 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0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한 뒤 신혼부부·대학생 등에게



**송광운 청장 프로필** ▲1953년 장성 출생 ▲광주일고·고려대 법대 졸업·전남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행정고등고시(18회) ▲전남도 행정부지사 ▲민선 4기·5기 북구청장 역임.

행복주택 1200세대 건립 신혼부부·대학생 제공

광주교도소 부지 주변에 인권평화공원 등 조성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광주·전남에서 7명이 3선에 도전했는데, 이 가운데 저를 포함한 3명이 당선됐다. 그만큼 3선이 어렵다는 얘기가. 3선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될 생각이.

-3선 구청장으로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북구는 지난 8년간 ‘섬김의 행정’을 통해 일자리 2만개 창출과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 전국 주민 행복도 광주 1위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앞으로 4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선 4·5기 때 미흡했던 부분을 꼼꼼히 보강해 나갈 생각이. 또 북구발전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지어 북구를 광주의 중심도시로 넘어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민선 6기 비전은.

▲북구는 광주 인구의 30%를 웃도는 45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면적도 3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양산제 주변 1만㎡ 부지에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복합적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북구는 무등산 국립공원 효호동 왕버들 환병당 등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다. 그간 광주 북구 8경과 지역 내 문화자원 668개를 담은 북구 문화자원총람을 발행하는 등 관광자원 활성화에 앞장서 왔는데, 앞으로도 무등산 국립공원과 북구 8경을 잇는 무등산권 생태문화 관광벨트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 계획은

▲5·18 사적지 22호인 광주교도소 부지 10만6771㎡를 비롯한 주변 토지 등 18만 3000㎡에 인권평화기념공원·민중인권센터·인권연구소·인권평화박물관·아시아 인권미술관 등을 조성해 북구를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만들겠다. 토지매입비 절감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법무부에 교도소 부지 무상양여를 적극 권의하고 광

주교도소 부지 구치소 건립이 철저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31사단 이전 문제는.

▲광주시에 국방부가 지난 3월 ‘기부 대양어’라는 방법으로 사단 사령부와 유격훈련장 부지 45만여 평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예비군 북구대 부지 8만여 평을 그대로 두기로 협의했다.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상호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대의를 위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용봉 IC 진입도로 개설문제는.

▲시급한 과제다. 용봉 IC는 목포와 장성, 곡성, 광주 상무지구를 연결하는 북구의 교통 요충지인데도, 진입로가 없다. 출·퇴근 이동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북구는 진입로 개설을 요구하는 안을 중

양부처에 건의, 지난해와 올해 39억 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뒤 2019년까지 진입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들에게 다짐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8년간 늘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북구를 ‘힘 없는 사람들도 희망을 꿈꾸는 세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람다운 삶을 사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고 싶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한다. 북구가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한국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쌀 관세화(시장개방)를 더 미룰 경우 이에 당사국들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제베도 총장은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쌀 관세화 유예의 특별대우’를 유지하는 방안이 관한 질문에 한국이 쌀 시장 개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WTO 회원국들과 추가 유예기간 및 이해당사국들에 대한 보상에 관해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관세화 추가 유예를 선택할 경우 부담해야 할 보상은 쌀 이외 다른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쌀이나 기타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증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제베도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해야 하는 최소수입물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등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필리핀은 지난달 WTO로부터 쌀 시장 개방 유예를 5년(2012.7~2017.6) 더 연장받는 대가로 쌀 의무수입물량

을 2.3배 늘리고 쌀 이외 다른 품목을 추가 개방키로 했다.

필리핀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WTO 회원국들과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아제베도 총장은 “한국의 쌀 관세화 의무는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계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면서 “농업협정 부속서에 앞으로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시 농업협정 부속서 5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에서 시작된 역사로 오래된 이야기”라며 “쌀 관세화는 그에 따라 한국이 약속했던 의무”라고 지적했다.

국내 일부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DDA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MMA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관세화 유예의 재연장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쌀 관세화를 연장한 한국은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방침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

연합뉴스

# 북 “아시아게임 실무회담 15일 열자”

## 판문점서 개최 제의

## 응원단 200~300명 될듯

북한은 10일 인천 아시아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이달 15일경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문을 보냈다”며 통지문은 “우리 선수단의 경기대회 참가와 응원단의 파견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7월 15일경 판문점 우리 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에서 해당 관계자들의 남북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남북 실무회담 제의는 지난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인천아시아게임에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3일 인천아시아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대회 참가 의사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응원

단 파견 등과 관련해 체육실무회담을 제의해왔다”고 확인하고, “정부 입장이 정해지는데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통지문이 거론한 ‘제반 문제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이동 수단과 체류 비용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과거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등 남한에서 열린 국제스포츠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했을 때도 남측은 사전접촉을 통해 북측 인원의 이동과 체류 비용 부담 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남측이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통지문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며 선수들의 경기 응원을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큰 규모의 응원단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하여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큰 규모’의 응원단을 보내기로 했다는 점으로 미뤄 당초 예상보다 많은 200~3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300명 이상의 응원단을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기복중알까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남녀기발

Advanced Partner SIEMENS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마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